

영산강 강변도로 1공구서 '지반 침하'

전남도가 개설 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1공구 구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안전진단과 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이후 영산강 강변도로 1공구 구간인 나주 다시면 회진리 앞 아스콘 포장도로 상판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현상이 관찰됐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도로 지하에는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관이 매립돼 있어 침하가 지속될 경우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로 지하에 매설된 지름 300mm 상수도관이 지반침하에 따른 하중을 못 견디고 파열될 경우 나주 공산 동강변 일대 주민들의 수도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된 해당 구

지하 매립 상하수도·가스관 파열 우려 전남도 긴급 안전진단·복구 공사 진행

간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해 폭 12m의 2차선 도로로, 영산강 쪽으로 개설된 편도 1차선 구간 도로 70m에서 도로 상판 아스콘 포장재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침하가 발생한 도로는 영산강과 바로 맞닿은 구간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지반침하 현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속하게 현장에 토목기술사가 포함된 기술 자원위원들을 파견해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서고 있다. 1공구 시공사도 추가적인 지반침하와 상수도관 파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구간 도로 표층을 1m가량 걷어내고 도로 하중을 줄이는 긴급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된 나주에서 무안을 잇는 총연장 34km의 '영산강 강변도로'는 전남도가 총 사업비 192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종합 진도율은 80%를 넘어섰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전남도가 3개 공구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공구 11.2km는 나주시 삼영동에서 다시면 죽산리까지, 2공구 11.6km는 죽산리에서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까지, 3공구 11.2km는 사창리에서 몽탄면 당호리까지로, 교량 8개소 1372m와 터널 1개소 183m를 포함하고 있다.

이 도로는 34km 신설구간과 기존 제방도로 확포장 구간 17.5km로 준공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날 1공구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반을 보강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콩고, 에볼라 재발 선포...17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비코로에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2건 확인됨에 따라 북서부 농촌 지역에 에볼라가 재발했다고 선언했다.

콩고 보건부는 이날 북서부 이퀴워르주에서 킨샤사의 국립생물학연구소로 보내온 5개의 샘플 가운데 2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변종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3일 이퀴워르주 보건부가 이코로 일렉지 지역에서 2건의 출혈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한 후 이 샘플들을 수집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콩고 정부는 말했다.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지역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조사팀 파견 이후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에볼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전문가 팀이 9일 비코로로 파견될 것이며 에볼라가 어떻게 다시 발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76년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9번째 에볼라 발병으로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다.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발병한 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지난 2014년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가 발병했을 때로 1만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는 때로 박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전염이 이뤄지며 치사율은 최근 90%에 이른다.

사람들의 체액을 통해 전염되는 에볼라는 특별한 치료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험 중인 백신이 에볼라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다마스쿠스군기지에 미사일 공격

시리아 국영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8일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시리아 공군이 날아오는 미사일 중 2개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테러집단을 향한 주요 수출국이라고 부르며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지 한 시간 뒤에 나온 것이다.

시리아 관영 SANA 통신은 이번 포격은 다마스쿠스 남쪽의 수많은 시리아 군기지가 모여있는 키스웨 지역을 향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시리아 TV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키스웨에 있는 이란의 정예 혁명방위군 소속부대의 무기고고와 로켓 발사대를 타겟으로 한 것이었으며 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현지에 소식통들을 두고 긴밀히 사태를 감시해온 이 단체는 그러나 사망자들이 이란군인지 친 이란 민병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 지역 이란군 장교 한 명은 이번 공격이 시리아의 한 육군 부대에도 가해졌지만 우연히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민간인 부부만 살해 당했다고 밝혔다. 공격 당시 진폭기도 떠 있던 했지만 이번 미사일은 골란 고원에서 발사한 지대 미사일인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한번도 시인이나 부인을 한 적 없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속적인 이스라엘이 양 국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지역에서는 예전보다 더 자주 공습을 당하고 있다.

새끼 때부터 키운 애완견 알고보니 여우

한 여성이 애지중지 키웠던 애완견이 여우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8일 중국 산시 네트워크 TV에 따르면, 산시성 진중시 출신의 왕씨는 지난해 7월 애완동물 가게에서 약 20만원을 주고 새끼 재패니즈 스피츠(Japanese spitz)를 입양했다.

그녀는 과일, 닭가슴살과 개 사료만을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스피츠를 돌봤다. 특이하게도 스피츠가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지만 아직 새끼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다 스피츠가 3개월이 지나자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도 그녀의 애완동물이 개가 아닌 여우라고 추측했다.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왕씨는 타이완 동물원에 스피츠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애완동물이 실은 개가 아닌 여우임을 알게됐다.

이후 왕씨는 새끼 때부터 키운 애완견이 여우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8일 중국 산시 네트워크 TV에 따르면, 산시성 진중시 출신의 왕씨는 지난해 7월 애완동물 가게에서 약 20만원을 주고 새끼 재패니즈 스피츠(Japanese spitz)를 입양했다.

그녀는 과일, 닭가슴살과 개 사료만을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스피츠를 돌봤다. 특이하게도 스피츠가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지만 아직 새끼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다 스피츠가 3개월이 지나자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도 그녀의 애완동물이 개가 아닌 여우라고 추측했다.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왕씨는 타이완 동물원에 스피츠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애완동물이 실은 개가 아닌 여우임을 알게됐다.

임형택 기자



동심의 세발자전거 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대학 축제인 대동제에서 학생들이 세발자전거 경주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경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존 혐의로 검찰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폭행 가담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 측의 일행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한편, 같은 혐의로 불집힌 피해자 측의 일행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9일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A(31)씨 등 7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확

보된 영상을 분석했다"며 "A씨도 2차례 볼을 든 사실은 인정했으며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1차 때는 공방의 제지로 볼을 버렸으며 2차 때는 누워있는 피해자 옆 바닥을 내리쳤으며 신체를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 B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CCTV와 현장에서 피문은 나뭇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례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율러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 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 불구속 된 가해자 측 3명과 피해자 측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정도, 정당방위 유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형택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